

3野 “오직 탄핵” 친박 “개헌하자” 비박 “4월 퇴진”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헌신

여야 정치권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충돌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은 야당에 박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을 논의할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면서 탄핵 추진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다만, 여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협상이 불발되면 9일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갈리면서 연말 탄핵 정국은 또다시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 ‘짚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 의식으로, 국회가 역할을 못 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주류 퇴임 시기·일정 협상 촉구

비주류 “협상 안되면 9일 탄핵”

野 “무조건 하야”...협상 전면 거부

전날 야당을 상대로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상을 요청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퇴임 시기와 일정에 대해 국회에 백지 위임을 한 것”이라며 “속뜻이 짚수건 아니건 국회가 대통령 사임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대통령의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저는 원로들의 제안이 대통령 사임 시기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광장의 합성을 통해 반영된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것”이라고 밝혀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에게 스스로 사퇴 시한을 내년 4월말로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여권 주류 측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달 8일까지 여야의 협상을 지켜본



3野 “탄핵공조 더 탄탄해졌어요”

뒤 불발될 경우 이튿날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 담화 직후 새누리당 비주류의 움직임이 주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더 확고해 졌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야3당 대표 회동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탄핵정족 의결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하야와 탄핵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기 단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을 거

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관한 여야 협상은 일단 무산됐으며, 현재로선 2일 혹은 오는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지난주 이미 임기 채우기 어렵다 판단”

청와대 “친박 중진들 ‘명예 퇴진’ 건의 결심 굳힌 상태에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임기 단축’을 결심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30일 전했다.

청와대가 전날 담화 발표 1시간 30분 전해야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전부터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이셔서 대통령께서 엄청난 큰 고뇌 끝에 결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탄핵 논의가 가속화하는 일련의 정국 상황이 박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의 지난 28일 ‘명예 퇴진’ 건의는 박 대통령이 나쁜 결

심을 굳힌 상태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 즉각 하야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도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깔렸다는 게 참모들의 분석이다. 대통령 권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거취 문제를 일임한 조점도 ‘안정적 정권 이양’에 포인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참모는 “야당은 고도의 계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다 내려놓겠다는 표현은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은 즉각 퇴진만 요구하지만, 당장 사퇴하면 2개월 후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 혼란을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질문이 있으면 교실 행복학교

친구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를 만듭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친구에게 먼저 말하세요.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넌 최고야! 멋져!’
‘힘내! 넌 할 수 있어!’
‘너는 항상 좋은 친구야!’
‘너는 생일선물처럼 소중한 친구야!’
‘괜찮아, 잘 될거야 걱정마!’
‘너를 믿어!’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같이 놀자!’
‘배려하며 함께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일보

이슈

“난 왜? 금남로 장엄한 촛불행렬에 끼지 못했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166) 촛불

2주일 전에도 1주일 전에도 토요일 밤, 금남로 오월 광장 근처에 있었지만 촛불을 들고 뛰어가 어두운 밤에 밝은 열망 하나 보태지 못했다. 눈앞의 작은 일에만 불평하고 분노하는 나 자신이 광장의 그 장엄한 대열에 끼어들기가 아무래도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것 같다. 소용돌이치는 분노에 합류하지 못하고 ‘열으로 비켜서’ 비겁하게 마음 졸이며 방관만 했던 내 모습이 후회된다.

일렁거리는 노란 불빛에 압도되다보니 내 마음 속 그림의 촛불 한 줄기 떠오른다. 조르주 드라 투르(1593~1652)의 ‘참회하는 막달레나’(1640~1645년 작)는 막달레나가 촛불에 시선을 두고 곱씹히 상념에 잠긴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막달레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과 예수를 매장할 때,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등 항상 예수 옆에 있었던 여성이다. 종교화에서 그녀의 등장은 상징적이지만, 처음 이 그림을 접했을 때는 정지된 화면에 고요히 파문을 일으키는 촛불에 단지 마음이 끌렸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무상함과 공허함을 나타내는 해골,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타자 위 나무심자기와 채찍 등을 통해 욕망에 휩싸였던 세속적 삶을 내려놓고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조르주 드 라 투르 작 ‘참회하는 막달레나’

순간의 정결한 신앙고백을 의미하고 있다.

서양미술에서 촛불은 종교화나 풍속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화가들은 촛불을 중심으로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효과에 주목했었다. ‘빛과 어두움에 관한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렘브란트도 초기에는 촛불을 활용해 대상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조화나 대비를 깊은 입체감으로 표현했을 정도다. 조르주 드 라 투르는 참회하는 막달레나를 주제로 한 그림을 몇 점 더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촛불을 매개로 빛과 어두움, 삶과 죽음의 장엄한 대조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